

“성공하려면 말빨부터 키워라”

문턱 낮은 화술 강좌로 인기 끄는 말빨연구소

“말빨은 듣는 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소통을 잘 이끄는 힘’이다. 소통을 잘하려면 세 단계를 유념해야 한다. 잘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의 최고 관심사는 ‘스펙’ 쌓기다.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스펙 항목은 학점, 토익, 어학연수, 대외 활동, 인턴십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수준도 부쩍 높아졌다. 하지만 어렵사리 스펙을 채워도 다들 비슷비슷해 나만의 경쟁력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터에 모든 스펙 앞에 ‘말빨’을 내세우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어 화제다. 이지연(27) 유엔유 대표가 설립한 ‘말빨연구소’는 ‘전 국민 말 실력 향상 프로젝트’라는 기치 아래 20~30대에게 말 잘 하는 비법을 전수하는 곳이다.

나의 경쟁력, 말빨로 증명한다

남들처럼 치열하게 스펙을 쌓으며 대학생활을 평범하게 보낸 이 대표는 졸업을 앞두고 지인들과 말빨연구소를 세웠다. 자신의 우수한 능력, 참신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번번이 면접 단계에서 낙방하는 젊은이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다.

소박한 출발이었지만 3년여 만에 회원이 7천여 명을 헤아린다. 화술의 향상에 목마른 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누구나 말하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쉽고 친숙하게 말하기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연구소 설립 취지를 밝혔다.

말빨연구소의 가장 큰 특징은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는 점이다. 일반 화술 강좌는 수강료가 너무 비싸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도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수강료 자율 기부’라는 기발한 방식을 채택했다. 면접과 자기소개, 프레젠테이션(PT), 발음과 발성, 목소리 훈련, 대화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재능 기부’ 역시 돋보이는 발상이다. 이 대표

는 제안서를 들고 전문가들을 일일이 찾아가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동참을 호소한 끝에 ‘남부럽지 않은’ 강사진을 구성했다.

힘들게 성사된 첫 강좌는 온라인 말고 별다른 홍보가 없었음에도 정원 200명을 훨씬 초과해 지원자가 몰리는 대성공이었다. 이후 정례화된 주 1회 특강도 늘 신청자가 넘쳤다. 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올 1월에 신설한 정규과정에는 정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수강을 신청하고 문의전화도 폭주하는 통에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진정한 말빨은 ‘소통’

정규과정의 첫 수업은 ‘스토리텔링’ 훈련이다. 큰 뼈대만 정해 주고 조금씩 자신의 얘기로 살을 붙여 가는 방식이다. 본인의 얘기가인 만큼 화제가 풍부하고 재미도 있어 화술 훈련에 제격이다. 그 다음에는 밝고 명쾌한 목소리를 갖기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과 스피드퀴즈 풀듯이 제시된 단어들로 즉석에서 얘기를 꾸며 나가는 ‘순발력 스피치’, 부여된 주제에 따라 3분간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설득 스피치’ 등이 이어진다.

“말빨은 남이 자기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이가 원하는 말을 하는 능력, 즉 소통을 잘 이끄는 힘”이라는 게 이 대표의 지론이다. 소통을 잘하려면 세 단계를 유념해야 한다. 잘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단번에 되지는 않는다. 강의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꾸준히 복습해야 한다. 신문과 책을 소리 내어 읽거나 거울 앞에서 표정과 손짓을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 대표는 “본인 스스로 연습하지 않으면 어떤 명강의도 소용없다”며 “말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연 유앤유 대표

사진_김영대 기자

2030세대의 성공 지름길 안내

유앤유는 지금 'GET' (가칭)이라는 잡지 발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 성공에 이르는 모든 지름길 안내'가 목표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큰돈을 모으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는 등의 세속적 의미가 아니다. 스트레스를 마땅히 풀 데가 없어 술만 마셔 대는 젊은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정신적, 문화적 성공을 가리킨다.

GET은 건전한 문화의 다양한 사례를 기사와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신개념 잡지를 표방한다. 최근 실시한 시장조사에서도 반응이 좋았고 서울시와의 지원 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대표는 "말빨연구소를 계기로 형성된 대중과의 소통의 장이 GET을 통해 더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꿈을 따라가는 과정을 즐기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유앤유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했다.

창업 성패는 영감 아닌 인내가 좌우

그는 남들에게 뒤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스펙에 매달리던 시절보다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한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

다. 관심도 있고 좋아서 하는 일이라 만족감이 무엇에도 비길 수 없다. 그렇다고 넉넉하게 시작한 것도 아니다. 초기에는 사무실조차 없어 카페를 전전하거나 아는 사람의 사무실 한 구석을 잠깐씩 빌려 업무를 보기도 했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을 보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적도 많았다.

가장 힘 빠지는 일은 나이 어리다고 광고주나 거래업체가 무시하는 것이었다. 이 대표가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은 반짝이는 영감이 아닌 인내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조언하는 것도 이런 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참고 기다리고 끊임 없이 활로를 모색하면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잘 찾아보면 창업 초기의 자금난을 덜 수 있다는 충고도 빠뜨리지 않는다. 유앤유가 입주한 서울청년창업센터만 해도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창업지원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전문 상담사가 청년 창업가들의 고충을 듣고 사업 방향을 잡는 일도 도와준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